

담양 딸기 '죽향'·'담향', 유럽서 2040년까지 품종보호권 확보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딸기가 유럽에서 2040년까지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 담양군은 자체 개발한 '죽향', '담향', 품종이 유럽연합품종사무소

시장 독점적 지위·분쟁 사전 방지하고 응용 품종 개발 원천

국내 유일 결정... '메리퀸' 품종도 서류심사·지배심사 진행 중

CPVO(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로부터 유럽지역 품종등록결정서를 통보받아 오는 2040년까지 20년간 유럽 전 지역에서 품종보호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품종 보호권'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세계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증식과 생산,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및 대여에 대해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품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개발된 품종을 바탕으로 응용 품종 개발의 원천

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연구에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담향', '죽향'은 담양군에서 육종된 딸기 품종으로 2017년 국내 품종출원 이후 유럽현지심사기관에서 품종등록 요건인 지배심사를 거쳐 심사기준에 알맞은 평가를 통해 인

증됐으며, 네덜란드 나크투인보우(Naktuinbouw)에서 인증 딸기묘를 관리하고 있다.

유럽품종보호출원이 결정된 국내육성 딸기 품종은 '담향', '죽향'이 유일하며, '메리퀸' 품종 역시 유럽품종등록을 위해 서류심사와 지배심사가 진행 중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럽인증 품종 '담향', '죽향' 조직배양 기본묘, 원원묘를 확보·센터 육묘장에서 증식해 우수한 딸기묘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우수종묘 증식포 2,160㎡를 구축했다.

또한, 유럽에서 우수종묘 품질 인증요 체계를 갖추어 종묘 수출기반을 마련했으며, 유럽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맛과 향이 우수한 품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담양의 딸기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딸기가 육묘, 재배, 유통, 가공, 체험 등 전 산업을 연계하여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세계 종자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품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국무총리 표창'



구례군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10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자체 생산성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과 역량을 객관적 통계 지표를 활용, 종합적인 생산성 수준을 측

정 평가하는 사업이다.

구례군은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작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53.51%가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관리가 우수하여 주민건강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자체 군 단위 1위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수상은 구례군민들의 성원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얻은 값진 성과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살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2021년 재배할 새청무 종자 체계적 공급 논의

곡성군, 2021년 재배할 새청무 종자 체계적 공급 논의



곡성군은 지난 12월 10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행정, 유관기관과 2021년에 재배할 고품질벼 새청무 종자 공급에 대해 협의를 했다.

새청무벼는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된다. 그러나,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첫 해여서 종자 생산량이 적어 농가가 신청한 양에 대해 부족한 종자의 자체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

새청무벼는 전남도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청무벼에 재배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새누리벼를 교배한 것으로 각 시군으로 점차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군은 순도 높은 종자를 가져와 선도 농가에 위탁하여 종자를 생산하였고 금년에 생산된 벼는 30여톤 정도이다. 이를 종자로 공급하기 위해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발아력과 종자 혼입율을 조사한 상태다.

또한, 공급체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을 통해 종자 소요량 파악과 종자확보 및 알선을 하고 농협에서는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군관계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서부터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향후 새해 영농설계교육부터 적기 모내기, 알맞은 비료주기, 물관리, 병해충 관리요령 등을 체계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희기자

나주 빛가람동 통장협-남양유업 상생 MOU



나주시 빛가람동 통장협의회(회장 장영배)와 남양유업나주공장(공장장 이창원)이 기업 발전과 상생 공동체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0일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업체 살리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제정한 빛가람동 통장협의회는 남양유업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업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나주공장은 통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복지, 지역연대 강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민의 공장 내 부대시설(카페) 이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장영배 협의회장은 "지역민으로서 우리 지역 업체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상생 협약을 제안하게 됐다"며 "남양유업 나주공장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희재본부

화순군, 영농 부산물 파쇄 시연회·안전교육 추진

내년 3월까지 16개 마을 대상으로 운영



화순군은 영농 부산물 파쇄작업 지원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잔가지 파쇄기 시연회와 농기계 안전교육을 시작했다.

화순군은 고추대 등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마을별 '영농 부산물 중점 파쇄 지원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 읍·면별 16개 대표 마을에서 잔가지 파쇄기 사용 방법, 잔가지 파쇄기 활용 장점, 농업 기계 안전 사용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 주민은 "복숭아 전정 후 남은 가지 처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잔

가지 파쇄기를 활용해 파쇄한 후 재 활용하니 일거양득"이라며 "더 많은 마을 주민이 파쇄기를 사용하도록 마을 일제 파쇄의 날"을 제정해 한 번 더 사용 해야겠다"고 호응했다.

화순군은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 대표가 '마을 일제 파쇄의 날'을 정해 농기계 임대 신청하면, 무료로 잔가지 파쇄기 임대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 신청은 내년 12월까지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산물 파쇄는 관행적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 미세먼지 감축, 파쇄물의 퇴비 재활용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며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파쇄 지원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